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⑬ 아미타독존 내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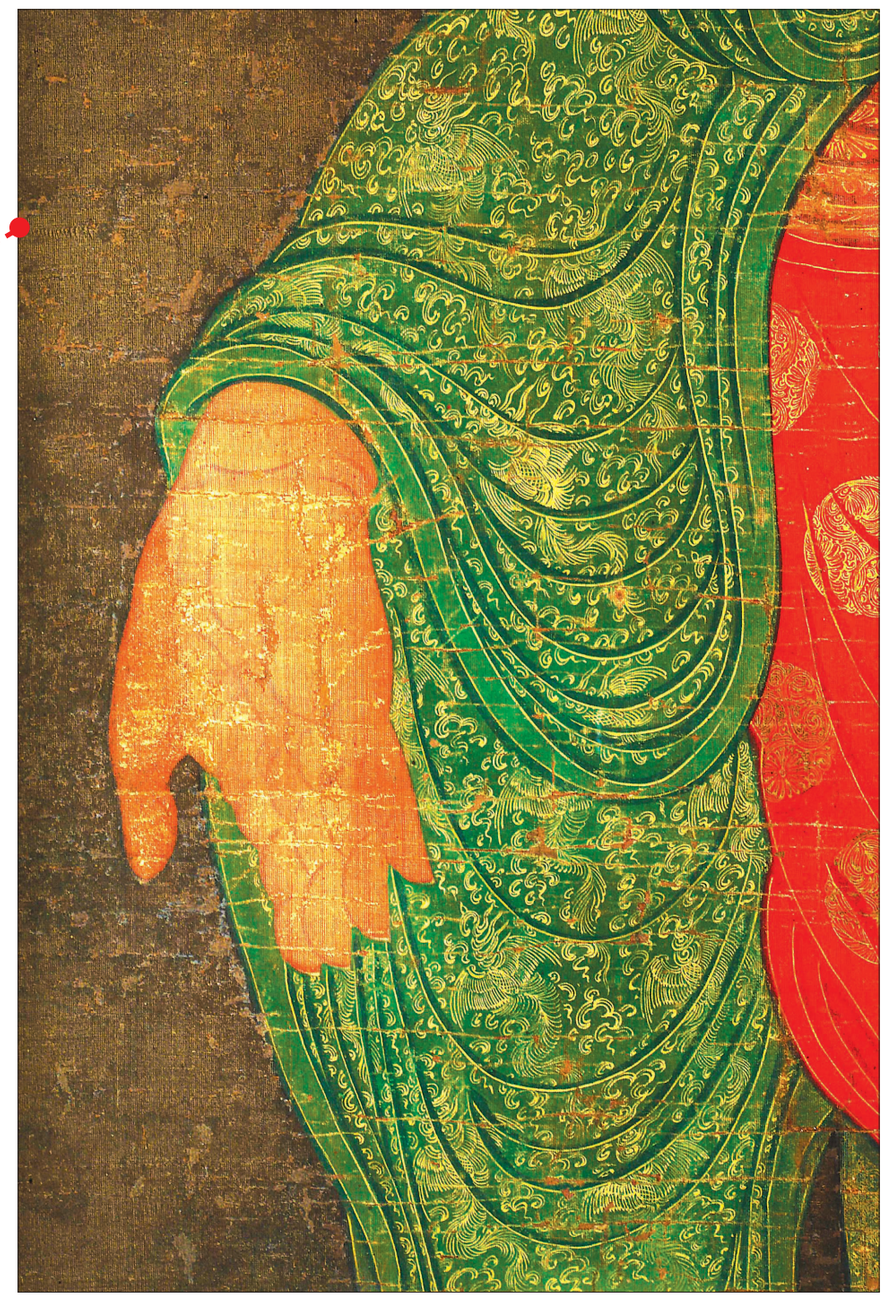
▶ 한줄 요약
일본 교토 쇼호지에 소장된 고려불화 〈아미타독존 내영도〉는 죽음의 순간, 자신을 맞이하러 온 아미타 부처님을 표현했다. 이 같은 내영도는 독존, 삼존, 팔대보살 등 다양한 도상이 존재한다.

임종 순간 내민 자비 손길

부처님이 내민 후덕한 손.(그림2) 죽음의 순간, 두려움에 떠는 중생에게 '두려워 말거라. 너 원대로 극락으로 가자' 며 손바닥을 내보이고 계시다. 오른손은 손가락을 동그랗게 말아 쥐어 극락세계를 설하는 설법인(說法印)을 하고 계시고, 왼손은 '네 뜻대로' 라는 의미의 여원인(與願印)을 하고 계시다. 나를 향해 '내영(來迎, 맞이함)' 한 모습이다. 손목까지 초록색 납의(衲衣)가 넘실대고, 옷 위에는 금빛 극락조가 물결치듯 날고 있다. 실제로 나투신 듯, 등신대 크기의 아미타 부처님의 장엄한 모습에 넋을 잃는다.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일본 교토 쇼호지(正法寺) 소장 고려불화 〈아미타내영도〉의 상반신 부분의 모습. 오른손은 극락세계를 설하는 설법인(說法印)을, 왼손은 '네 뜻대로'라는 의미의 여원인(與願印)을 하고 계시다.

그림②. 아미타부처님의 내민 손. 여원인의 수인을 하고 있다. 네 뜻대로 극락정토로 이끌겠다는 의미다.

아미타불 맞이하는 고려불화
독존 · 삼존 · 팔대보살 '다양'
임종 순간 중생 구제 표현해
염불, 자기 마음 찾는 수행법

〈아미타 내영도〉 다양한 형식들

임종의 순간 나투시는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미타 내영도' 라는 장르이다. 고려후기 얼마나 많은 귀족 및 왕족들이 아미타 내영도를 그려달라고 주문을 했는지는 지난 연재에서 다룬 바 있다. 수요가 많아서였는지, 고려불화의 내영도는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정면에서 보았을 때, 존상이 몸을 좌측으로 3/4정도 틀고, 한 손을 길게 내밀어, 대각선 아래에 마치 중생이 있는 양 내려다보며 '어서 오시게' 하는 듯 몸짓을 취하고 있는 것이 '내영도' 형식의 기본이다.

실제로 대각선 아래에 시선이 닿는 곳에, 곧 임종을 맞이할 발원자의 모습이 그려 넣어져 있기도 하다. 삼성 리움미술관 소장 〈아미타삼존 내영도〉의 경우, 왼쪽 하단 구석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극락왕생을 바라는 불화 발원자의 실제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측면관이 아닌 정면관의 내영도도 존재하지만, 내영도 형식으로는 좌향좌의 측면관이 압도적이겠다.

이러한 기본 형식에 아미타부처님이 단독으로 내영하셨는지, 아니면 협시보살을 대동하고 내영하였는지에 따라, 형식이 다채로워진다. 단독이면 〈아미타독존 내영도〉,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과 함께하면 〈아미타삼존 내영도〉, 팔대보살과 함께 큰 무리로 오시면 〈아미타팔대보살 내영도〉가 된다.

일본의 경우 역시, 고려 시대와 유사한 시기인 가마쿠라 시대에 아미타 내영 관련 불교미술이 단독 주제로 한 시대를 휩쓸 만큼 많이 조성되었다. 조각상으로도 많이 조성되었지만, 불화로는 '아미타25보살 내영도' 라는 주제가 크게 유행하였다. 제목 그대로 아미타 부처님이 25명이나 되는 보살들을 이끌고 큰 무리를 이루며, 임종하는 중생의 영가를 구하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하강하는 그림이다. 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5보살 내영도는 없고, 8대보살의 무리가 가장 큰 무리로 묘사된다. 일본 가마쿠라 시대의 내영 조각상 또는 불화의 아미타 및 그 무리는 무조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금으로 칠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채로운 채색과 금선묘의 문양으로 고려불화만의 독자적인 섬세함과 격조 높은 화려함을 과시한다고 하겠다.

중생 구제를 위한 몸짓

고려 시대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맞이함을 이렇게도 절실히 바랐던가. 현존하는 내영도 형식의 작품을 보면, '아미타독존 내영도' 가 8점, '아미타삼존 내영도' 가 14점(측면관 10점, 정면관 4점), '아미타8대보살 내영도' 가 4점으로, 총 26점으로 집계된다. 내영을 나온 성중의 무리가 점점 늘어나면서 구제의 힘이 더욱 막강해 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오롯한 존재감이 돋보이는 작품은 단연 독존의 내영도이다. 일본 시마쯔(島津) 가문의 구장(舊藏) 작품으로 알려진 1286년명 '아미타독존 내영도' 의 경우는, 아미타 부처님이 (정면에서 보아) 오른쪽의 극락 방향으로 이미 몸을 틀어 발을 옮기면서, 고개를 뒤로 돌리고 상반신을 틀어 왼손을 길게 내밀고 있다. 당시 왕과 왕비였던 충렬왕과 원성공주가 임종 시에 일체 장애물들 모두 사라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맞이함을 받아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며, 총신 염승익이 발원한 작품이다.

작품 속 아미타 부처님은 '얼른 내 손잡고 극락 가자라' 는 모양새가 역력히 드러나도록 묘사되었다. 자꾸만 뒤처지는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이쪽으로 빨리 오라는 손짓과 몸짓이다. 묘사가 이쯤 되면, 당장이라도 그림 속 부처님 손을 잡고 싶은 깊은 충동이 일어난다. 내게로 뻗은 저 손만 잡으면, 이 고단한 속세를 지금이라도 벗어날 것만 같다. 아미타 부처님의 풍만하고 신비한 자태와 깨달음의 고요한 빛, 그리고 넘실대는 극락의 풍경을 가사 장삼에 휘황찬란하게 펼치며, 나를 향해 간절히 길게 내민 손! 단독 존상의 아미타 부처님의 우아한 몸짓과 고귀한 아름다움은 깊은 매력과 함께 묘한 감동을 일으킨다.

'맞이함'의 등급 차이

〈무량수경〉에는 〈관무량수경〉의 '9품 왕생' 의 원조가 되는 '왕생의 원리' 가 언급되어 있다. 상 · 중 · 하 3등급으로 중생의 근기를 나누고, 왕생에도 인과법(因果法)이 어김없이 적용됨이 설파되었다. 상 · 중 · 하 각 등급의 중생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인지, 지면상의 한계로, 궁금하신 독자님들께서는 〈무량수경〉 제5장을 참조하시기를 권고 드린다. 본 지면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의 과보로서의 왕생 내용만 요약한다.

"상(上)근기의 중생은 임종 시에,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그의 앞에 나투신다. 부처님을 따라 극락왕생하는데, 칠보 연꽃에 화생하여,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不退轉) 자리에 머문다."

즉, 상근기 중생은 죽는 순간,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내영을 받는다. 찬란한 빛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연화 화생' 한다는 것이다.

'연화 화생' 이란 말 그대로 '연꽃에서 태어난다' 라는 것이다. 입태(入胎)하여 자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자리인 연꽃에서 태어난다. 보리심을 일으키고 선 공덕을 쌓고 수행정진한 과보로 속세가 아닌, 깨달음의 세계에 태어난다. 그리고 다시는 추락 없는 불퇴전의 열반자리에 그대로 머문다고 한다.

"중(中)근기의 사람들이 임종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 나타난다"고 한다. 아미타 부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화신이 나타나는데 그 화신을 따라 왕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근기와 달리, 왕생의 자리와 머무는 등급에 차이가 언급되어 있다.

가장 낮은 하(下)근기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근기라도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의 조건은 "임종 시에 마음을 한결같이 모아 다만 열 번이라도 아미타부처님을 지극 정성으로 외우면" 꿈결에나마 어렴풋이 아미타 부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이다. 하근기라도 모두 구제하는 강력한 타력신앙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멀쩡히 살아생전에도 염불을 안 하던 사람이, 그 정신없는 숨 넘어가는 순간에 그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러니 어서들 평소에 염불 하시오!"

한국 대표 수행, '염불'의 전통

신앙적 맥락에서 가장 널리 유행한 수행법이 바로 '염불 수행' 이다. 한국불교에 있어서 염불수행의 전통은 원효 스님에서부터 나옹 스님, 요세 스님 그리고 근대의 청화 스님까지 그 맥이 아주 넓고 깊다. 다양한 부처님 보살님의 명호 또는 다라니 등이 염불되지만, 그 중에서도 시대를 불문하는 으뜸이 '나무아미타불' 이겠다.

"우리의 본 마음자리를 캐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본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우주의 정기(精氣)입니다. 따라서 염불이나 108배, 오체투지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그 자리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나 깨나 밥을 먹으나 일을 하나 어느 때나 부처님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한 번 외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만큼 우리 마음도 정화되고 우리 업장이 녹습니다. 거기에다 마음을 두는 것이 참다운 공부입니다." —청화 스님 법문집서 발췌 인용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페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페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